

소니, OLED TV 출시 연기

WSJ, 수익성 악화 우려 ... 삼성전자·LG전자에 호재

소니가 수익성 악화를 우려해 차세대 OLED(유기발광다이오드) TV 출시를 연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8월18일 소니(Sony)가 2007년 말에 출시한 11인치 OLED TV의 차기 모델을 2009년에 공개할 계획이었지만, 적어도 2010년까지 새 모델을 출시하지 않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소니는 TV 사업이 6년 연속 적자를 기록했으며, 2008년에는 전체 영업손실의 50% 이상인 1270억엔을 기록했다.

WSJ는 소니가 수익성을 최우선으로 하기 위해 OLED TV 신제품 출시를 연기한 것으로 보고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국내기업에게 호재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9/08/18>